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요즘에 감기가 유행하는데, 뉴스를 보면 가끔 진행자가 ‘감기’ 대신 ‘고뿔’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이 말이 원래 어디서 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찬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답** ‘고뿔’은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원래 ‘곶불’에서 풀이 변한 말입니다. ‘곶불’은 다음의 예의 (가)처럼 16세기 국어 자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 (예) 가. 그 집안 사름들히 다 그 히 그모도록 **곶불**도 만나디 아니흐며  
다섯 가지 장석 컷것도 피흐리라 <“본문은역이해방”(1542)에서>  
나. 害鼻淵 **곶불**흐다 <“동문유해”(1748)에서>

‘곶불’은 ‘고+ㅅ+불’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는 ‘코’의 옛말이고 ‘ㅅ’은 사잇소리이고 ‘불’은 ‘불’의 옛말입니다. 곧 이 말은 감기에 걸려 코에 불이 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곶불>곶불>고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고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뿔’이 ‘코뿔’로 되지 않은 것은 이 말이 아마도 오래전에 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고뿔’보다 더 널리 쓰이는 ‘감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한자어로 잘못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감기’를 ‘감모(感冒)’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풍사(風邪)’라고 합니다.

**☐물음** 할머니가 목욕을 한 후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손자에게 “빨개벗고 어딜 돌아다니냐?”라고 하시는데, 동화 제목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면 ‘빨개벗고’도 ‘빨가벗고’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개벗다’가 맞는지, ‘빨가벗다’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 ‘빨가벗다’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입을 옷을 모두 벗는 것을 ‘빨개벗다’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은 ‘빨가벗다’를 ‘빨강다’의 활용형 ‘빨개(빨강+-아)와 ‘벗다’가 결합한 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빨가벗다’는 ‘빨개’와 ‘벗다’가 결합한 말이 아닙니다. ‘빨가벗다’는 ‘발가벗다’의 센말인데, ‘발가벗다’는 ‘발다’의 고어 ‘붉다’의 어간 ‘붉-’에 어미 ‘-아’가 붙고, 여기에 ‘벗다’가 결합한 말입니다. 그리고 ‘발가벗다’의 큰말인 ‘벌거벗다’는 ‘붉다’의 어간 ‘붉-’에 어미 ‘-어’가 붙고 여기에 ‘벗다’가 결합한 말입니다.

붉+-아+벗다 > 발가벗다 : 빨가벗다

붉+-어+벗다 > 벌거벗다 > 벌거벗다 : 빨거벗다

그러므로 ‘발가벗다’, ‘벌거벗다’의 센말은 ‘빨개벗다’, ‘빨개벗다’가 아니라 ‘빨가벗다’, ‘빨거벗다’로 써야 맞습니다.

**☐물음** 글을 쓰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처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써야 되는 것 같기도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인지 혹은 바람직한 표현이 따로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신윤희,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 ‘누군가’는 ‘누구인가’가 줄어든 말입니다. ‘누군가’, ‘무언가’, ‘어딘가’ 등의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등은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등에 서술격 조사 ‘이-’가 결합된 후, 여기에 또다시 종결 어미 ‘-다가’가 결합된 구성입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자주 생략되어 쓰입니다. ‘소이다’, ‘노래이다’, ‘소리이다’ 등이 ‘소다’, ‘노래다’, ‘소리다’ 등으로 줄어드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에서 ‘누군가’는 주어인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가’를 종결 어미라면 어미가 주어를 만들므로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누군가’는 주격 조사 ‘가’가 생략된 것입니다.

- (1)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다.  
누군가: 누구+(이-)+-다가+(가: 주격 조사)
- (2) 철수는 뭐가(를) 보았다.  
뭐가: 뭐(무엇)+(이-)+-다가+(를: 목적격 조사)
- (3) 그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  
어딘가: 어디+(이-)+-다가+(에: 부사격 조사)

(1~3)의 예에서 보듯이 ‘누군가가’, ‘뭔가’, ‘어딘가에’ 등은 ‘누군가’, ‘뭔가’, ‘어딘가’ 등으로 격 조사 ‘가’, ‘를’, ‘에’ 등의 생략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문장에서 ‘누군가’는 ‘누구인가’에 서술격 조사 ‘이-’와 주격 조사 ‘가’가 생략된 형태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다.”가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 “그는 강도에게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은 올바른가요?  
(이선주,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답) 아닙니다. “그는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고쳐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죽임을 당하다’는 흔히 ‘죽음을 당하다’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양자가 모두 쓰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실제로 양자의 쓰임은 뚜렷이 구분됩니다.

- (1) ㄱ. 낙랑 공주는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 ㄴ. 낙랑 공주는 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1ㄱ)은 “아버지가 낙랑 공주를 죽이었다.”라는 능동 행위를 전제로 한 피동 표현인데, 여기서 ‘낙랑 공주’가 당한 것은 아버지라는 구체적 인물의 죽이는 행위, 즉 ‘죽임’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다’가 자연스럽고, (1ㄴ)과 같이 ‘죽임’ 대신에 ‘죽음’을 넣은 경우에는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한편, 다음의 예문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 (2) ㄱ. 그는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했다.(×)
- ㄴ. 그는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다.(○)

(2ㄱ)은 구체적인 인물의 죽이는 행위를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당한 것은 ‘죽임’이 아닙니다. ‘그’는 우연히 ‘죽음’이라는 좋지 않은 일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넣은 (2ㄱ)이 부자연스럽고, ‘죽음’을 넣은 (2ㄴ)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죽임을 당하다’는 죽이는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 ‘죽음을 당하다’는 죽이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막연할 때 쓰이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는 강도에게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표현은 죽이는 행위자가 뚜렷이 존재하는 경우인데도 ‘죽음을 당하다’로 표현하였으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는 “그는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고쳐 적어야 합니다.